

물가 안도와 전쟁 불안 공존, 반도체 강세 속 지수는 혼조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
호르무즈 상황 주시하며 증시 관망, 이틀째 혼조 양상

- 미 증시는 DOW -0.61%, S&P500 -0.08%, NASDAQ +0.08% 혼조세. 전일 오라클 호실적에 이어 반도체 섹터 강세에 나스닥은 상승 전환 마감
- WTI +\$88.4(+5.9%). IEA 전략비축유 4 억배럴 공동방출 합의, 역대 가장 많은 수준. 그러나 JP 모건은 해당 규모가 초기 완충 효과에 불과하다고 진단. 레어드노턴웨더비 CIO는 IEA 결정에도 제트유 등 정제제품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발언
- 이란과의 지정학 긴장 상황 지속에 달러인덱스 99.2pt 반등

이란의 오일무기화 기조, 트럼프는 관세 재검토

- 영국 해상운영무역국은 호르무즈 해협 내 민간화물선 3 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. 로이터는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 피격 선박수를 최소 14대로 전망
- 미국 측은 호르무즈해협의 이란 기뢰부설함 대부분 제거 완료했다고 밝힘. 반면 이란 측은 오일 무기화 전략에 따라 미국 동맹국 선박 통과를 지속 제지할 것이며, 유가가 \$200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 경고
-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새 관세 관세조사 발표 준비, 제 301 조에 의한 불공정무역 겨냥. 관련하여 2 월까지 회계연도 누적 기준 미국 재정적자 1 조 40 억 달러, YoY -12%. 회계연도 첫 5 개월간 관세 수입 1,510 억 달러 YoY +294%

CPI는 부합했으나, 전쟁 불안에 쏠리는 심리

- 2 월 CPI YoY +2.4%, MoM +0.3% 컨센 부합. 근원 CPI YoY +2.5%, MoM +0.2% 컨센 부합. MoM 기준 주거비 +0.2%가 가격 상승 주도. 에너지 +0.6% 상승 전환, 휘발유 +0.8%, 천연가스 +3.1% 등
- 다만 국제금리는 급등 10Y 4.228%(+9.3bp) 2Y 3.653%(+8.4bp) 2 월 CPI가 전쟁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. 연준 위원들도 앞서 전쟁발 유가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더 지켜보아야한다는 신중한 입장 보인 바 있음

특징주: 오라클 호실적 등 기술주 훈풍, 사모신용 우려는 지속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ORCL	오라클	+9.2%	3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기록하며 주가 강세. 수주잔고를 나타내는 RPO(남은 이행 의무)는 \$553B으로 직전분기 대비 증가, 폭발적인 수요 확인. AI 인프라 부문은 32%의 매출 총이익률 기록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시장의 우려 불식
OWL	블루아울캐피탈	-4.7%	JP모건체이스가 사모대출펀드의 담보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 하락. 아레스매니지먼트(-4.8%), KKR(-3.2%) 등 동반 하락
NBIS	네비우스	+16.1%	엔비디아(+0.7%)로부터 \$2B 투자 유치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. '30년까지 5GW 이상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,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를 조기에 도입하여 하이퍼스케일러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계획
TSLA	테슬라	+2.2%	2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91% 급증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
CPB	캠벨	-7.1%	부진한 실적 및 컨센 하회하는 가이던스 제시에 주가 하락. 매출 감소와 더불어 인플레이션, 관세 영향으로 조정 영업이익 급감한 영향
BLDP	발라드파워시스템즈	+9.1%	NFI 그룹의 자회사인 New Flyer와 5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엔진 500기를 공급 계약 체결하며 주가 급등. 파트너십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수주이며, '26년부터 북미 전역의 수소 전기버스에 탑재될 예정